

제공일자	2013. 8. 29(목)	담당자	전용식 부실장(동향분석실)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02-3775-9051)	연락처	02-3775-9035, 010-9247-8637

총5매

제목 : 생명보험 가입률 하락,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미흡'

□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주요 보험관련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였음*.

○ 동 보고서에는 2005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 실태 및 가입경로, 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 향 및 선호 가입경로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됨.

○ 그 외 최근 주요 이슈인 노후생활 및 연금, 방카슈랑스 실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실태, 보험 이해도, 보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 및 수록

※ 본 설문조사는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제주 제외)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 임.

생명보험 가입률 하락

□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12년과 동일한 96.1%로 나타났으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모두 전년에 비해 감소

○ 특히, 생명보험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개인별 보험가입률의 경우 손해보험 가입률 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1.1%p 상승한 94.0%를 기록하였으나, 상승 폭은 오차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음.

- 개인별 생명보험 가입률은 전년대비 2.0%p 하락한 반면,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률은 장기손해보험 가입률 상승에 힘입어 6.7%p 상승

가구 및 개인 보험가입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구	생명보험	89.9	88.0	87.3	86.3	83.0
	손해보험	87.4	85.9	91.4	87.2	86.8
	전체	97.4	96.4	98.0	96.1	96.1
개인	생명보험	81.8	81.4	78.0	79.3	77.3
	손해보험	59.5	65.0	71.5	67.9	74.6
	전체	92.0	92.1	92.5	92.9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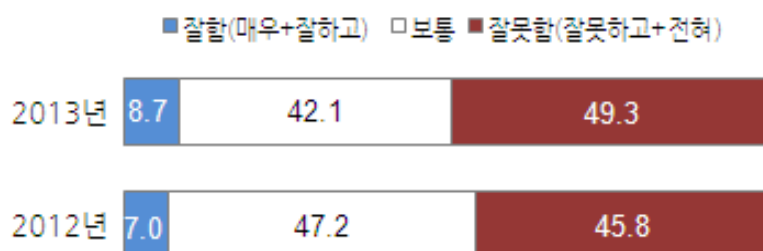
노후준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미흡’ 하다고 평가

□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는 8.7%에 불과한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3%로 높게 나타남.

- 응답자 절반 정도가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전년도에 비해 노후준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평가

(N=1,200 / 단위: %)



-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은 평균적으로 현재 소득의 58.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2.4%p 증가한 것임.
 - 한편,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저축액은 월평균 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조사결과 보다 1만 4,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소득의 45.7%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자들은 답변
-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보험소비자의 23.3%가 방카슈랑스채널 “찍기” 경험

- 방카슈랑스 가입실태 조사결과, 신규대출, 대출갱신 또는 대출한도 증액 등 대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가입을 요구받는 이른바 “찍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3.3%로 나타났음.
 - 또한,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한 가입으로 기존 예·적금 중도해지 특별이율 적용 등 특별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16.3%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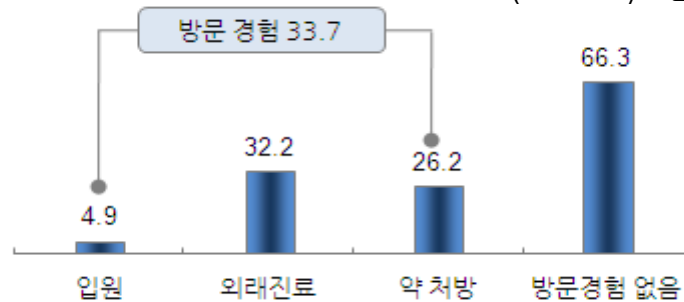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10명 중 3명(33.7%) 의료기관 이용(6개월 내), 의료기관 이용자 중 29.7%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N=709) 10명 중 약 3명이(33.7%)가 최근 6개월 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료기관 이용 경험 가운데 외래진료가 32.2%로 가장 많았고, 약 처방 26.2%, 입원 4.9%,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66.3%로 나타났음**.

**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합계가 33.7%를 초과함.

최근 6개월 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복수응답)

(N=709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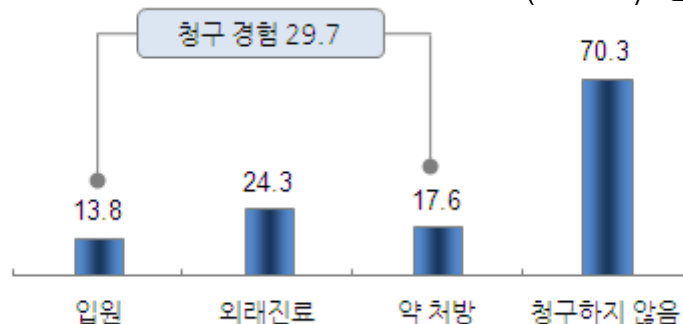


주: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병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실태.

- 최근 6개월 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N=239) 중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9.7%**로 나타났다. 반면, ‘청구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0.3%로 조사되었음.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경험(복수응답)

(N=239 / 단위: %)



저성장 장기화로 가계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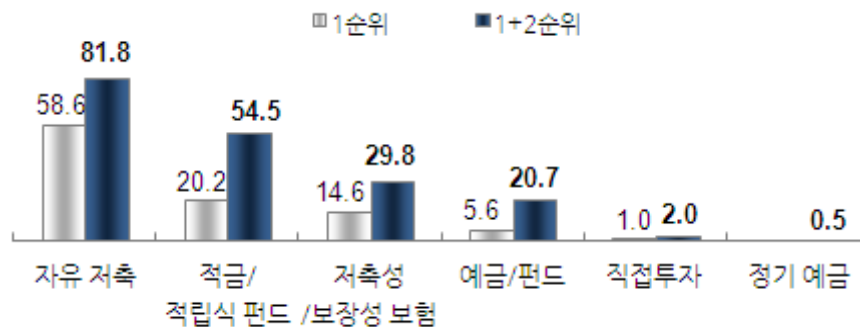
필요자금 충당목적으로 저축성·보장성 보험 해지 의향 크게 확대

- 금융기관 및 지인 등으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27.6%**로 2012년에 비해 **4.8%p** 증가
- 현재 소득이상의 자금수요에 대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응답비율이 43.3%로 나타났고, 보유 금융자산 해지·환매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16.5%**로 전년도 9.8%에 비해 크게 상승

- 특히 보유하고 있는 저축성·보장성보험을 해지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29.8%로 전년도의 21.4%보다 높아졌음.
- 저축성·보장성 보험 우선 해약의 이유로 타 금융상품에 비해서 해약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금융자산 해약 시 우선 순위

(N=198 / 단위: %)



※ 첨부 :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